

# 기암괴석 봉우리 절경 이루는 고흥 팔영산 일원 명승 된다

###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검토 안전 가결



고흥 팔영산 (사진=고흥군청 제공)

기암괴석 봉우리들이 절경 이루는 전라남도 고흥 팔영산 일원이 명승이 된다. 1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는 최근 회의에서 고흥 팔영산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검토 안전을 가결했다. 문화재위원회는 “고흥 10경 가운데 으뜸으로 알려진 팔영산은 산 정상부 능선에 병풍처럼 이어진 여덟개 거대한 기암괴석 봉우리가 웅장한 경관을 이루고 각 봉우리에서 아름다운 다도해 해양풍경과 고흥반도의 산야를 조망할 수 있는 명소”라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팔영산과 여덟 봉우리는 각각 그 명칭

의 유래와 수려한 경관 등을 자랑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고려시대 왜적 침입을 피해 피난했던 자연동굴과 항일의병 전적지인 만경암지, 깃대봉 봉수터 등 역사유적도 남아 있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명승지”라고 평가했다. 2011년 1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영산은 고흥군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8개 봉우리로 이뤄져 있다. 산세가 험하고 기암괴석이 많다. 1봉 유영봉(491m), 2봉 성주봉(538m), 3봉 생활봉(564m), 4봉 사자봉(578m), 5봉 오로봉(579m), 6봉 두류봉(596m), 7봉 철성봉(598m), 8봉 적취봉

(608m)으로 여덟 봉우리가 남쪽을 향해 일직선으로 솟아 있다. 아래에는 고구려의 아도가 창건한 것으로 전하는 능가사가 자리하고 있다.

원래 이름은 팔전산(八顛山)이었다. 중국 위왕의 세수대야에 그 봉우리가 비친 고사에서는 그림자 영(影)을 쓴 팔영산이라고 주로 부르고 있다. 고산자(古山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신령할 령(靈)으로 표기돼 과거 신령한 산으로 팔령산이라고도 했다. 1872년 흥양현 지도에는 팔전으로 표기됐다.

지난해 10월 현지조사를 한 문화재위원회는 “팔영산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수려한 경관의 팔영산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8개의 봉우리에서 다도해의 절경을 조망할 수 있어 경관적 가치 높다”며 “고려시대 역관이던 유정신이 왜적의 침입을 피해 숨어들었다는 ‘유정승피난굴’과 근대기(1909) 의병항쟁 전적지인 만경암지 등 전설과 역사유적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역사 교육의 장소로 확대 활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또 “경관적 가치를 비롯해 역사적·인문학적·생태·학적 가치가 풍부해 명승의 지정 조건에 적합하고, 고흥반도 중심으로 역사적·학술적 중요도는 물론 우주의 매카로 자리하는 지역 문화 발전의 장소로, 그리고 자연의 경관과 보존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재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관보를 통해 명승 지정을 예고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보성군, 2024년 알기 쉬운 전 국민 지원 시책 책자 배부

### 17개 분야 319개 지원 시책 수록 ... “다양한 사업을 한 권에”

보성군은 부서별 관리하고 있는 지원 정책을 소책자로 제작해 군민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시책 홍보에 나섰다. 보성군은 분야별 다양한 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4년 알기 쉬운 전 국민 지원 시책’을 제작해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동안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한 서비스를 책자에 수록해 체계화했다. 특히, 기존의 부서별 또는 분야별 안내 책자와 달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319개의 각종

지원 시책을 총망라해 보건, 복지, 농림, 축산, 안전 등 17개 분야로 나눠 한 권에 담았다. 또한, 각 분야별 사업들은 신청 시기순으로 배열하고, 각 사업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간략하게 요약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자는 각 읍면으로 배부했으며, 군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 등에 비치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잘 전달되고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성=김택순 기자



## 순천시, 생태경제 도시 모델로 전국 주목...3대가 잘사는 도시로 ‘도약’

2023년 순천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로 시민들의 자부심이 한껏 높아진 한 해였다.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에는 어려운 순간 순간 지혜를 모아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시민들의 자부심을 에너지로 삼아 3대가 즐기는 K-디즈니 순천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생태가 경제를 견인 ‘순천 모델’ 전국적 주목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로 순천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전국에 확실하게 각인, 도시위상이 높아졌다.

1,000만명이 육박하는 관람객이 찾아와 지방 소멸시대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을 뿐 아니라 생태가 경제를 견인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제 순천은 정원박람회를 끝내고 문화콘텐츠 산업인 K-디즈니 순천과 함께 지구인뿐 아니라 우주인도 구경 오는 정원 컨셉으로 정원을 새롭게 단장해 오는 4월 재개장 한다.

### ▶ 선물 받은 순천, 3대가 잘사는 도시로 거듭나다

젊은이들은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에, 시는 젊은 인재 유출을 막고 3대가 잘사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문화콘텐츠 산업, 글로벌대학 30, 대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2,000억 원 가까운 국비 지원 약속으로 정부의 선물을 받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사업은 글로벌대학 30에 선정된 순

천대학교와 함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원도심을 제작 거점화하여 도시 전체를 산업기지로 하는 전략이다.

청년들에게 또 다른 선물은 순천대 글로벌컬대학 30선정이다.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5년간 국비 1천억 원을 확보했다.

핵심사업으로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우주항공 그리고 이차전지이다. 시는 글로벌대학 30 공동 추진을 위한 지·산·학·연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무형 인재 육성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원박람회 성공을 동력삼아 지난해 한화에너지로스페이스 단조립장 유치를 시작으로, 승주바이오토크 지식산업센터 유치, 포아인즈 관광레저타운 조성을 위한 포스코와이드 투자협약과 더불어 이차전지 첨단산업소재 포스코리튬솔루션과의 투자협약 등이 이뤄졌다.

### ▶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순천형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전남의 의료 환경은 전국적으로 봐도 열악한 편이다. 순천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대학 병원의 시스템 역할을 하고 관내 의료 기관이 대학병원 내 각 진료과를 담당하는 순천형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소아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증 소아에게 24시간 전문적인 진료 가능한 순천형 소아응급실도 내년 3월중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순천형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재단 기금을 설립해 전문 특화 병원 운영을 위한 장비 확충 뿐 아니라 관내 의료기관 중 꼭 필요한 진료과이지만 재정이 어려운 곳에 지원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